

# 美國 石油産業의

# 현안문제와 대응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지난해** 原油價의 급격한 하락은 기력이 쇠잔한 石油을 참호속으로 밀어 넣었다. 오늘의 美國의 석유산업은 포격이 멈춘 후 참호속에서 떨고 있는 베르덩의 생존자들처럼 잔뜩 겁에 질려있다. 사실 OPEC (石油輸出機構)는 배럴당 18달러의 油價유지를 분명히 합의한 바 있지만, 그 이전의 油價수준으로 복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커다란 油田개발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E. H. Clark 2세는 현재의 심경을 『전투가 완전히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를 참호밖으로 꺼내어 목을 찌르지 않을까 두려워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그러나 우리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장래를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마 그들의 말이 맞을 것이다. 세계의 석유전문가들 사이에는 기준油인 아라비아나이트原油의 가격이 오는 수년 내에 87년 불변가치로 배럴당 18~2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콘센서스가 조성되고 있다. 石油市場의 불확실성과 石油카르텔(OPEC)의 유난히 허술한 내부단속으로 인하여 油價는 파동을 계속할 것이며, 아마 오르기보다는 내리기가 쉬울 것 같다. 실제로 지난 2월말에는 배럴당 17달러선 가까이까지 하향세를 보였다. 그러나 中東에서 새로운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한 배럴당 27달러에서 10달러까지 폭락하고 다시 18달러로 반등하는 작년과 같은 급격한 파동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油價는 세계석유수요가 공급능력에 근접하게 되는 오는 90년대초까지에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세에는 기본경제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OPEC의 성숙한 행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의 경험에서 OPEC는 收入증대노력이

그만큼 시장상실을 재촉한다는 교훈을 배웠다. 실제로 高油價가 석유수요약감을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78년 美卡特行政府는 自由世界의 석유소비가 당시의 5천1백만 b/d에서 85년에는 6천만b/d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지난 85년의 소비실적은 예상에 크게 못미치는 4천6백만b/d로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OPEC가 추구한 高油價정책은 신규유전의 개발을 촉진하여 알래스카, 멕시코, 北美 등지에서 매우 경제성 있는 油田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非OPEC의 산유량은 79년부터 85년까지 28% 증가하여 최고 2천5백6십만b/d에 달함으로써 OPEC의 산유량에 필적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油價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급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당분간 油價를 배럴당 20~22달러선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석유전문가나 업계에서는 믿고 있다. 사우디의 이러한 정책은 지난해 OPEC가 겪은 참담한 고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OPEC가 얻은 또 하나의 교훈은 회원국들이 나이지리아나 알제리 등처럼 자신들의 石油을 무제한으로 판매하려하면 油價의 함몰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이다. 카르텔의 협약이 또다시 붕괴되면 油價는 배럴당 10달러까지 간단히 떨어지며, 그렇게 될 경우 상습적인 이탈자들은 지난해보다는 훨씬 빨리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할 것이다.

\*베르덩전투: 제 1 차대전 중기의 독일·프랑스군의 결전. 1916년 2~12월 프랑스 북동부 베르덩요새에 대하여 독일군은 결전을 시도했으나, 프랑스의 패랭이 끝까지 사수하였다(譯者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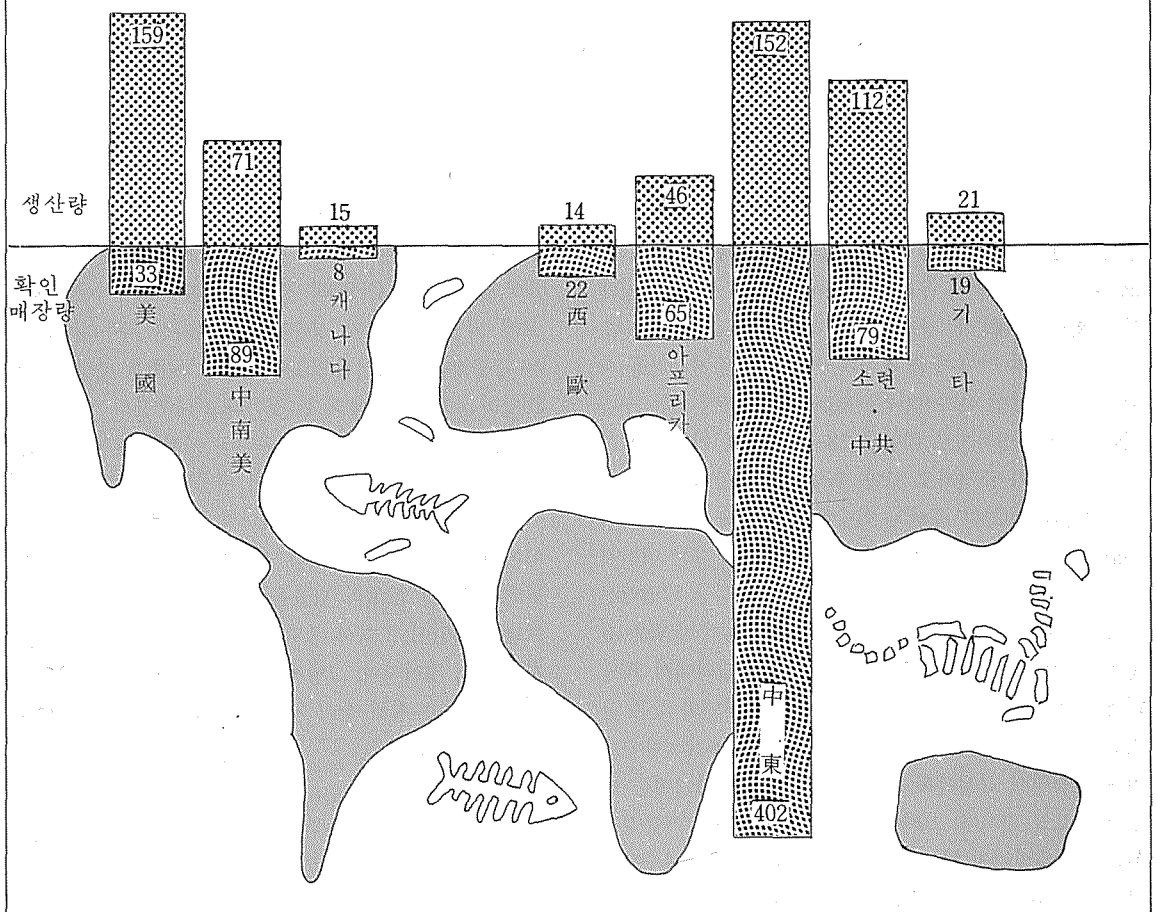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허드슨연구소의 에너지연구이사인 윌리엄 M. 브라운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험은 예외없이 모든 OPEC國에게 큰 쇼크였으며, 그들은 油價가 배럴당 8달러나 7달러 심지어 6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OPEC회원국이자 외화획득의 70%를 石油輸出入에 의존하고 있는 에콰도르는 지난 1월 外債 81억달러에 대한 이자지불을 연기한 바 있다. 에콰도르는 원래 외채상환기일을 엄수하는 몇 안되는 低개발국중의 하나이었으나 86년초의 油價급락으로 경제적 곤경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배럴당 18달러의 油價는 美石油産業이 간신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만한 수준이다. 향후 美석유산업은 규모가

축소되고, 개발 및 시추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을 저정해야 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록키산에 성시를 이루던 이동식 주택과, 돈 많은 텍사스의 롤스로이스를 개조한 픽업트럭, 그리고 80년대초까지의 高油價시대에 油田을 찾아 흘러다니던 뜨내기 탐광업자들의 모습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대부분이 石油會社들의 희생을 위한 노력은 외부여건에 거의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政府가 나서서 에너지정책을 심각하게 표명한다고 할지라도 여건이 성숙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문제는 低油價가 石油소비자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비채산성으로 인하여 국내석유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美國은 궁극적으로 석유공급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

〈그림 - 1〉 世界 原油 확인매장량과 原油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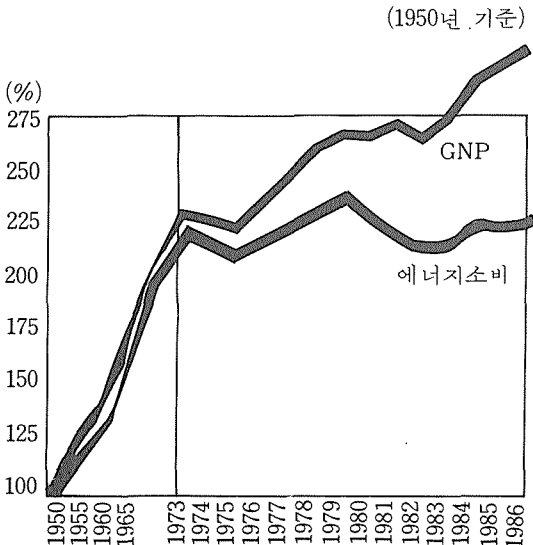
(단위 : 십억배럴)



게 된다. 政府가 해야할 일은 국내에너지생산을 촉진시키는 외에 에너지절약을 제고시키고, 또 한편 대체에너지源의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低油價의 실질적인 受惠者는 美國經濟이다. 현재의 배럴당 18달러가 작년 여름보다 80%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벼운 부담으로 휘발유와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어 실업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GDP(國內總生産)성장에 건전한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低油價의 順機能에 도취되어 原油輸入증가라는 심각한 문제가 각과되고 있다.

(그림-2) 美國의 GNP 성장 및 에너지소비 추이



이미 그 추세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86년 1월부터 87년 1월까지 美國의 石油생산은 68만b/d, 무려 7.5%의 감소를 보였다. 한편 석유소비는 40만b/d 증가하여 9년 만에 처음으로 GDP성장률을 앞질렀다. 결과적으로 1백만 b/d이상의 輸入요인이 생긴 셈이다. 油價가 배럴당 18달러에 계속 머무를 경우 美國의 석유소비에서 수입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의 39%에서 91년에는 50%를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API(美石油協會)는 추산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지난 73년 아랍에 의한 첫번째 석유수출금지조치시에는 수입원유의 비중이 35%였으며, 79년 2차석유위기가 일어날 당시에는 46%를 차지하고 있었다. 美國의 수입원유의 대부분을 가까운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

라 등지로부터 들어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공급부족과 그에 따른 가격상승의 효과는 전세계시장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세계 수출원유의 40% 이상을 中東이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셰브론의 대표이사이자 API회장인 조지 켈러가 『美國은 또 한차례 중대한 석유위기를 겪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와같은 이유에서이다.

어떠한 외부적 발단에 의해서 전과 같은 석유위기가 초래될지 예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1차석유위기가 지난 73년 제4차 中東戰爭(Yom Kippur War)에 따른 아랍諸國의 石油禁輸에 의해 초래된 것처럼 79년 전세계를 엄습했던 2차석유위기는 이란혁명에 발단이 되었다. 이러한 전례를 미루어 볼 때 현재 진행중인 이란-이라크戰에서 이란이 승리할 경우 또 한차례 油價急騰이 예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란은 油價政策에 있어서 매패이다. 또 한정된 석유매장량을 갖고 있는 몇몇 OPEC회원국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市場육성에는 별 관심없이 目前의 油價인상에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미가제식 戰士와 회교신봉자들로 충만한 勝戰에 도취한 이란이 油價인상을 위하여, 또는 『白堊館의 사탄』의 콧대를 꺾어 놓기 위하여 인접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減産을 종용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경제학자 앨런그린스펜을 비롯한 몇몇 관측통들은 이란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압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하고, OPEC는 이제 이란對 사우디아라비아의 무대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뾰박한 시장상황은 긴장을 고조시키기 마련이다. 현재 自由世界의 석유소비는 4천7백만b/d로서 석유생산능력에 1천2백만b/d 모자라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 초과생산능력의 2/3를 中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3세계 뿐 아니라 西方의 경제성장에 따라 앞으로 3~5년후에 초과공급능력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에 가서는 中東에서의 어떠한 경미한 돌발사태도 그곳에 석유공급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는 발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셰브론의 켈러사장파 다른 업계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 ◇ 배럴당 18달러는 OPEC로서 바람직한 수준

지난해 12월 제네바會議에서 OPEC는 1천5백8십만b/d의 수출쿼터에 합의를 봄으로써 그동안 쿼터배분을 둘러

싼 분란이 종식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란, 이라크와 같이 재정이 꺾박한 회원국들이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가운데 불행중 다행으로 기본체제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금년 들어 2월에 아람코콘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4개 美石油會社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배럴당 18달러에 5개월 原油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전통적으로 3월 말이나 4월초는 석유수요가 감소하는 때이다. 따라서 이번 봄이 18달러대의 油價정착을 위한 중요한 첫번째 시험기인 셈이다. 만일 油價가 크게 하락한다면 OPEC회원국들은 재빨리 쿼터제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OPEC가 이 가격대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수록 유지하기가 그만큼 쉬워진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배럴당 18~20달러를 유력한 油價수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이 가격대는 OPEC국들이 시급한 재정소요부족을 메울 수 있을만큼 높은 수준인 동시에 非OPEC의 신규유전개발의욕을 저하시킬만큼 충분히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배럴당 18달러의 油價수준에서 石油소비자들은 현재이상으로 석유소비절약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또한 80년대초처럼 代替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OPEC石油에 대한 수요가 매년 약 4%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회원국들의 생산쿼터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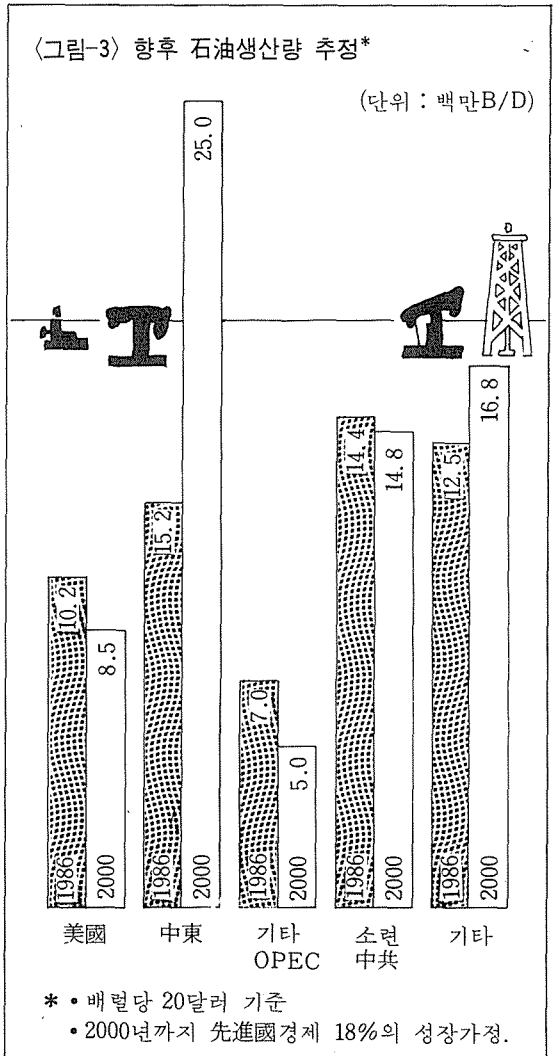
美에너지장관의 자문그룹인 National Petroleum Council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오는 90년까지 OPEC는 총생산능력의 80%(현재 66%)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同보고는 역사적으로 OPEC의 생산가동률이 80%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지난 73년과 79년처럼), 카르텔은 油價인상의 견인력을 갖게 되고, 또 인상된 가격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 중요한 이유로 잉여생산능력의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聯合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3개국이 油價정책에 異見을 보인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들 3개국이 80년대초에 어렵게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미니카르텔」을 결성한다면 막강한 세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에 대해 텍사스 미첼에너지사의 조지미첼회장은 「80%는 위험신호이다」라고 말하고 「그때가 되면 미니카르텔에 의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美國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또 한차례의 석유위기를 지난 70년대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대처할 것이다. 에너지절약과 石炭을 비롯한 대체연료의 개발에 힘입어

美國의 석유소비비중은 79년의 47%에서 현재 43%로 낮아졌다. 또한 석유보존절약의 일환으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는 5억배럴의 石油가 유사시 일시적으로 輸入石油을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석유위기에 따른 경제적 댓가는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79년도외 석유위기시에만도 美國은 두차례의 경기후퇴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油價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인해 美國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지난해 세계석유시장이 꺾박한 상황이었다면, 美國의 OPEC회원국인 對리비아 보복공습은 재고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아람산유국들은 對美 석유

〈그림-3〉 향후 石油생산량 추정\*

(단위 : 백만B/D)



거래증지를 고려하였으나 이내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油價하락으로 美國의 석유산업은 이미 큰 타격을 받았다. 시추활동의 지표가 되는 Hughes리그의 數가 지난 여름에 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700개 이하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806개로 회복된 바 있다. 80년 기준油인 사우디아라비아안라이트의 現物市場價格이 배럴당 39.75달러로 치솟았을 때 美國에서 시추중이던 리그의 수가 3,220개에 달했던 것과는 비교가 된다. 한때 불철주야로 땅을 파 횡재를 하던 전설적인 텍사스의 시추업자들은 이제 1년에 1~2井 시험적인 시추만을 할 뿐 많은 수가 이미 轉職을 한 상태이다.

82년 이후 美國에는 30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중 80%가 유전개발업종에 종사하였던 人力이다. 요즘 휴스턴의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하는 지질학자들을 만나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며, 일자리를 못구한 시추기술자들은 다른 油田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거나 아니면 딸린 식구들의 부양을 위해 밀업에도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업종에 대한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다. 텍사스大學 石油 엔지니어링學科에는 지난해 192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82년의 1,112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1만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 한 油田개발회사 사장은 『회사문을 닫고 그동안 이룩해 놓은 사업과 고용인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으며, 人生의 허무를 느끼게 된다』고 슬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美國의 석유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석유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부터이며 77년 알래스카原油에 의해 역전되기까지 감소추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알래스카油田조차도 오는 89년부터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여 매년 3%씩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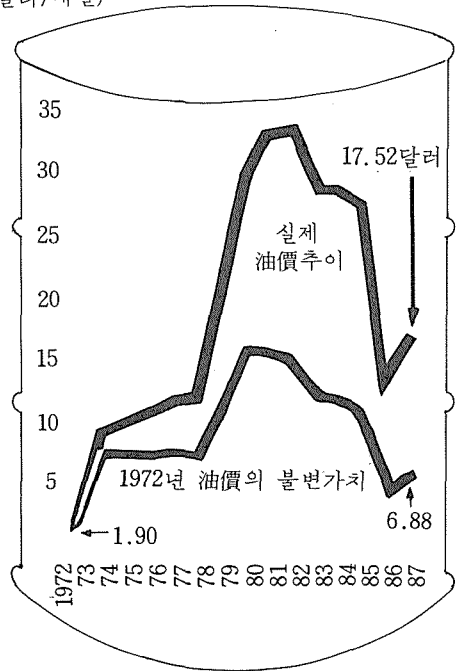
美國은 현재 1井당 평균생산량이 14b/d에 불과하기 때문에 석유수요량 9백만b/d(NGL제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65만개의 油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반면 5개 中東 OPEC국들의 井당 생산량은 3,100b/d로서 같은 量의 석유를 생산하는데 불과 3,000井이면 족하다.

中東의 석유생산코스트는 배럴당 1달러가 채 안되며, 신규유전개발비용도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中東의 광대한 사막 어디에나 숟가락을 던져 넣어도 가득히 석유가 고인다는 말이 있다. 반면

美國의 석유생산코스트는 배럴당 7달러 수준이며, 신규매장량의 발견비용도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會計法人의

(그림 4) 油價추이 (아라비아안라이트 기준)

(달러/배럴)



계산에 의하면 약 10달러 정도가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질학적 여건에서 비롯되는 숙명적인 것이며, 이러한 이유때문에 지난 7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안라이트를 배럴당 1.90달러에 판매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1.90달러는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4.84달러에 해당되는데, 그들은 현재 배럴당 18달러를 받으면서 죽는 소리를 하고 있다.

◇신규油田의 開發보다는 기존 매장량의 賣入이 활발

低油價는 시추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美國에는 45만개의 零細井(stripper well)이 있는데 이중 9만여井이 지난 82년 이후 폐쇄되었다. 군소생산업자 뿐 아니라 메이저들에 의해서도 운영되는 영세井은 井戶당 日産 10배럴 미만으로서 모두 합쳐 美國內수요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배럴당 18달러의 油價수준에서는 이들중 상

당수가 채산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油井보수에 사용한 기름과 有毒化合物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대부분의 州에서는 1년 이내에 모든 유류 油井을 시멘트로 봉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잇달은 油井폐쇄로 인하여 90년대 美國의 석유생산량은 1백만b/d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내지 10년후의 석유생산을 위한 탐사가 지금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메이저들은 거의 내부조성자금에 의해 탐사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지난해 油價가 평균 15달러에 머물렀을 때, 석유업계의 流動性이 44% 감소하여 탐사에산이 1/3 축소된 260억 달러에 그쳤다.

탐사대신에 많은 메이저들은 신규매장량을 발견하는 것보다 배럴당 수달러씩 비용이 덜 소요되는 기존확인매장량 매입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美國의 石油富에 아무런 증가없이 資産의 移轉만을 의미할 뿐이다. Quarterly Reserve Report誌의 발행인 스트레비그氏에 의하면 이러한 거래가 지난 84년 이후 67%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주로 이 업종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나 신규 油井시추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 低油價가 유전개발에 好機가 될 수도

신규油井 전체의 약 85%를 시추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獨立系석유회사들은 최근 財源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에 에너지貸付에 열을 올리던 은행들이 최근 신규유전개발관련 대부에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86년의 租稅改革法(Tax Reform Act)는 시추기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의욕을 감퇴시켰다.

이 법에 따라 투자자들은 무한책임이 따르는 同사업에 종사하지 않는한 投資損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26세의 텍사스 석유4세대인 샌더퍼씨는 『만일 石油와 가스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모험이 가득하고 또 가격의 위험부담까지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곳에 투자하면 안된다는 교환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은 油田개발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배럴당 18달러 심지어 15달러에서까지 이

익을 거두고 있다. 美國內 최대 생산회사인 아르코는 18~20달러의 油價가정하에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거의 어떠한 가격수준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이익감소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아르코社의 한 관계자는 말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조광업자는 油田개발에서 요즘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기가 어렵다. 석유산업의 침체 덕(?)으로 시추코스트는 81년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조광권획득을 위한 경쟁의 저하로 유망한 鑛區를 유리한 조건으로 賃借할 수가 있다. 거기에다 최신의 슈퍼컴퓨터는 석유부존여부를 보다 정확히 알려주어 시추성공률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

지난 80년대초 高油價였던 당시 석유회사들은 石油 및 가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탐사·생산하기 위하여 신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油價가 하락하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신기술들이 경제성을 상실하였으나 댓가를 지불한다면 언젠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MIT의 경제학교수인 알데만박사는 심화되는 石油발견의 어려움이 地球科學의 발달과 생산기술의 진보에 의해 극복되어 온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는 『우리는 절대로 石油資源을 고갈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하고 『문제는 앞으로 발견하게 되는 매장량의 생산코스트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석유탐사의 鬼才로 알려지고 있는 휴스턴의 시추업자 미첼 헬버티氏는 技術이 美石油産業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고 있으며, 美國이 10년 이내에 1천만b/d의 石油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다른 생산업자들에 비해 훨씬 낙관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 ◇ 美석유산업을 回生시키기 위한 제안

石油생산감소의 영향으로 美國의 天然가스개발도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천연가스는 부존량이 적고 또 감소추세에 있어 그동안 정당한 평가를 못받아왔다. 그러나 70년대末 이후의 발견추세를 볼때 가스부존량이 石油의 수배에 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규발견가스의 관리체제로 인한 개발붐에 의해 가스bubble로 불리는 3조입방피트에 달하는 가스의 공급과잉(美國의 가스소비량은 年17조 cft)이 초래되었을지라도, 油價가 배럴당 18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되는한 가스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美國內 많은 시설들이 淸淨에너

지인 가스사용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적인 聯邦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레이건政府는 에너지정책에 관한한 자유시장에 일임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국내석유생산 감소추세에 대한

수입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上院에너지분과위원회장인 루이지애나출신의 존스틴의원은 『원유수입관세는 국내공급가격을 인상시키고, 그로인해 유전개발이 보다 활기를 띠는 것으로 기대되어 국내석유산업의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부과에 따른 負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에너지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輸入原油 배럴당 5달러의 관세부과는 5년이상의 기간동안에 年1%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며, 연간 0.7%의 GNP성장률둔화효과를 가져와 失業증대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관세부과에 따른 코스트상승으로 인해 美國企業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議會통과시 각종의 면제조치들 —예를 들어 캐나다產 原油, 멕시코產 原油, 그리고 일반소비자용 석유제품—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정부는 휘발유 1갤론당 9센트씩의 휘발유稅를 이미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수입관세보다는 휘발유稅 부과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議會豫算局은 갤론당 12센트의 휘발유稅 추가징수가 10mb/d의 수입원유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수입관세부과보다 인플레이션유발 효과가 적으며, 연간 90억달러에 달하는 租稅收入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휘발유稅 추가징수가 이러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석유생산증대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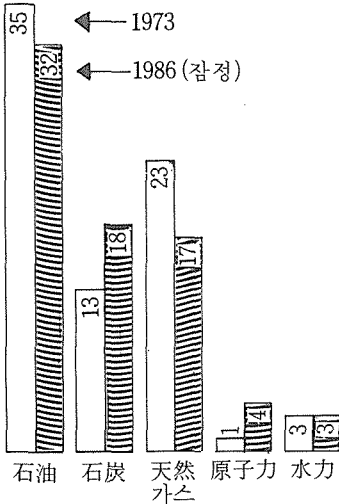
▲ 石油 및 가스의 개발확대에 보다 넓은 지역이 허용되어야 한다.

美國이 개발중에 있는 가장 유망한 지역은 API(美石油協會)가 32억배럴로 추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岸 海上과 현재 美國내공급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Prudhoe灣(확인 매장량 96억배럴)에 바로 이웃한 北極國立野生動物保護區域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어느곳에서나 유망한 발견은 없었으며, 환경론자들은 석유시추가 이 지역을 오염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石油開發年報에 의하면 알래스카의 Mukluk油田과 大西岸의 불티모어케년油田처럼 십억달러짜리 乾孔으로 드러날 뚜렷한 징후들이 많이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해상유전과 북극유전에서 생산되는 原油가 백mb/d의 輸入原油를 대체할 수 있

(그림 5) 美國의 에너지源別 소비추이

(단위 : 백억btu)



대책으로서 政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존 헤링턴 에너지장관은 임버릿처럼 말하고 있다. 석유산업은 美國人들을 종종 분노하게 하는 추잡한 돈벌이를 위해 현재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회사의 소매업 또는 사무비품업 침투를 돕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그러나 공공정책적인 안목에서 볼 때, 美國의 해외석유 의존심화는 국가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정치인, 경제학자, 경영인들이 美國의 민감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촉구하는 제안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輸入原油에 대한 관세징수案은 철폐되어야 한다.

輸入原油의 의존심화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장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관세부과이다. 輸入原油 배럴당 5달러(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액수)의 관세를 징수한다면 공급가격이 높아져 그만큼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美에너지省의 계산에 의하면 배럴당 5달러의 관세부과는 60mb/d의 輸入감소효과를 가져오며 5년동안 37억달러의 재정

을 것을 감안하여, 美議會는 석유산업에 이들 유전의 개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議會는 賃借공매 조건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해상유전의 賃借權을 획득하기 위해 석유회사들은 석유생산여부도 알기 전에 수백만달러의 비용을 추가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府는 개발성공후 로얄티를 많이 징수하는 대신 先受 로얄티를 경감시키는 보다 유연한 정책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 전략석유비축이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美國이 비축하고 있는 약 5억배럴의 석유는 지난 73년 아랍의 石油禁輸에 의한 세계시장의 석유감소분을 초과하는 量이라고 PIW紙의 John Elting Treat발행인은 말한다. 이 SPR(전략석유비축)이 있음으로 인해 對美國 石油武器化는 억제되고 있다. 하버드大學의 윌리엄호건 정치경제학교수는 SPR이 목표량인 7억5천만배럴에 도달하게 되면 9개월동안 美輸入石油의 1/2을 대체할 수 있으며 혼란에 빠진 세계에 수습할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政府는 SPR을 88년에 하루 3만5천배럴로 1/2 줄일 것을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시건주 출신의 家庭에너지 및 商業위원회위원장인 존 덩겔의원은 하루 7억5천배럴의 비축유지와 파이프라인공급계획 확대를 白堊館에 촉구하였다. 덩겔의원은 장래 에너지위기사 석유비축 및 배급을 위한 비상계획운용의 개선을 주장하는 선도자이기도 하다.

▲ 過當利得稅는 폐지되어야 한다.

두차례의 油價급등에 편승하여 석유회사들이 거두어들이던 막대한 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지난 80년 議會에서 통과된 過當利得稅(windfall profits tax)는 당시 훌륭한 착상으로 평가되었다. 油價는 배럴당 50~60달러를 넘겨다볼 태세였으며, 따라서 議會는 油價 배럴당 18.50달러 이상에서 석유생산회사가 얻은 이익의 최고 70%를 稅收로 징수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현재는 油價가 배럴당 18.50달러에 못미치고 있어 적용이 안되고 있으므로 稅收의 결손없이 이 稅를 폐지할 수 있다고 폐지론자들은 주장한다. 『그것은 惡稅이다, 기업들은 많은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油田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MIT의 알데만 경제학교수는 말한다.

▲ 減耗償却充當金설정이 다시 허용되어야 한다.

이 稅로 인하여 시추업자들은 원유생산시 27.5%의 수익감소를 겪어야 했다. 또한 지난 75년 美議會는 거대 메이저시추회사들의 減耗償却充當金(depletion allowance)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반면 獨立系회사들의 감모상각충당금은 銅 또는 林木생산업자 등 천연자원회사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세브론의 조지켈러社長은 『하루 2만배럴을 생산하든 1백배럴을 생산하든 세금이 왜 차등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출신의 균형예산 옹호론자 필그램상원의원도 同충당금의 復活로 인한 稅收감소는 이로 인해 예상되는 생산증가에 따른 稅收증대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석유산업에 대한 政府의 세제조정 이전에 증대된 이익을 에너지 생산에 재투자한다는 業界의 자각이 요구된다.

▲ 에너지절약은 지속되어야 한다.

低油價로 인해 에너지절약의 심각성이 많이 이완되어졌다. 비록 議會가 再可決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가정용기기의 개선된 효율기준법안이 大統領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 86년에 行政府는 自動車생산업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갤런당 27.5마일의 경제주행기준을 갤런당 26마일로 완화하였다. 議會는 시속 55마일의 상한속도 철폐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으며, 벌써 몇몇州에서는 이것의 적용에 소극적이다. 석유제품의 약 40%가 자동차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상승추세에 있어 휘발유의 소비감소는 특히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자동차용의 다른 경제성있는 대체연료가 없기 때문에 연료절약형 엔진과 속도제한을 포기할 시기가 아니다.

현재 美國의 에너지정책의 근간은 오는 21세기초 대체 에너지源의 활용이 본격화되어 풍족한 에너지공급시대가 올때까지 그러저럭 지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전에 油價의 급등과 급락이 예상되는 눈앞에 닥친 시기를 헤어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워싱턴분석회사의 관계자는 말한다. 또한 당장에 美國에 단비를 내려주고 있는 低油價가 장기적으로는 최악의 조건중의 하나인 것이 불행하지만 현실이다. □

〈표출誌 87. 3. 16〉